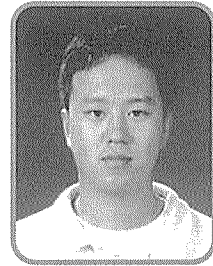


시공간 제약 없이 이용 가능...

전자책 수(數) 적어 아쉬움



김 봉 기*

1. 전자책도서관을 만나다

지금 시각 늦은 밤 11시.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동양문화의 이해라는 교양 수업에 관한 개인 보고서를 쓰고 있다. 미리 제출 기한을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은 내 실수이지만 어찌되었든, 내일 오전 9시에 시작하는 수업 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수님은 보고서에 대한 참고 도서로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지정해 주셨다. 미리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여 읽어보긴 하였지만 몇 가지 내용들이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지만 책은 이미 반납했고... 이 시간에 어디에서 책을 찾지? 온라인 서점에 가도 며칠은 기다려야 하고, 학교 중앙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볼까? 그래도 책 내용은 확인하기 힘들 것 같은데...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러다 문득 중앙 도서관 사이트에서 보았던 전자책도서관이 생각났다. 그 책이 절실했던 나는 전자책도서관 사이트로 이동, 검색을 통해 해당 책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대출 버튼을 클릭하고 대출한 책을 확인할 수 있는 내서재라는 웹페이지로 이동했다. 그리고 읽기 버튼을 클릭하니 프로그램(전자책 리더)이 실행되면서 『국화와 칼』을 읽을 수 있었다. 책을 빌리는 과정은 채 1분이 걸리지 않았고, 모든 과정이 한 번의 클릭으로 처리됐다.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나는 빠르게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다음 날 수업 전시간까지 무사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 2003학년도 1학기의 어느 늦은 저녁 -

내가 처음 전자책도서관을 이용한 것은 대부분의 대학생들처럼 학업에 필요한 자료를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neohighman@hanafos.com

얻기 위해서였다. 전자책도서관을 처음 이용하던 2003년 1학기만 해도 나는 중앙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는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온라인에서 바로 책을 대출하여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 전자책도서관에서 책을 대출받아 리포트를 작성한다는 것은 꿈조차 꾸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보고서를 쓰기 위한 자료를 찾는다는 것이 전자책 도서관을 알게 됐고, 이곳에서 내가 원했던 자료들을 찾아 읽어보고 그 편리함을 알게 되면서 나의 전자책 도서관 이용은 시작됐다. 전자책도서관을 이용하게 되면서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책을 빌리고, 보고, 반납하는 모든 과정이 한 번의 클릭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전자책 도서관 이용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먼저 해당 전자책 도서관 사이트로 접속해서 학교에서 인증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고, 원하는 책을 검색해서 찾는다. 그리고 보고자 하는 책의 대출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책을 대출하고, 이를 내서재에서 확인하여 읽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책 리더 프로그램을 통하여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책 안에서도 검색어 하나로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하여 내가 원하는 부분을 바로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간단한 과정으로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도서관에서 종이책을 대출하려면 학교 컴퓨터에서 책을 찾고, 일일이 책을 찾아가 책 내용을 확인하고 목차를 확인하여 내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전자책도서관, 난 이렇게 사용한다

내가 처음 전자책도서관을 이용하였을 때만 해도, 주 활용 용도는 보고서와 시험 준비를 위한 자료 찾기 수준이었다. 원하는 책을 검색어로 빠르게 찾아서 대출하고 책 안에서도 검색어 하나로 내가 원하는 내용을 바로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양질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험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용을 하던 것이 PC에서 책을 읽는 것에 점점 익숙해지자, 관련 전공 서적들과 참고서적은 물론 교양 서적들을 PC앞에 앉아 읽으면서 전자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필요한 내용들은 전자책을 읽으면서 바로 메모해 두고, 중요한 부분은 줄이나 형광펜을 칠해 내용을 기록을 해 두면 그때 그때 찾아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였다.

또 최근에는 취업 준비를 하게 되면서부터 영어 공부가 필요했기에 영어 교재를 전자책 도서관을 통해 대출하여 보게 되었는데, 별도의 어학용 학습기(워크맨이나 MP3 플레이어 등)가 필요 없이 MP3를 들으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어 학습에 편리했다. 이처럼 전자책도서관은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어디에서든 접속하여 바로 이용이 가능해서 가뜰이나 전공 서적들로 가득 차 무거워진 나의 책가방의 무게를 덜어주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 이용이 가능해 더 많은 책을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자동 반납되기 때문에, 항상 늦은 책 반납으로 연체료를 지불해야 했던 나에겐 금전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줬다.

때마침 산 PDA는 전자책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PDA는 휴대성이 뛰어나고, 여러 권의 책을 하나에 담을 수 있다. 이런 장점 덕에 여유 시간이 날 때마다 주머니에서 꺼내 바로 책을 읽을 수 있다. 학교를 오갈 때, 누군가를 기다릴 때와 같이 틈이 날 때마다 독서할 수 있어 시간을 보다 유익하게 이용할 있다. 그리고 PDA는 무선인터넷 연결이 가능해 생각날 때마다 전자책도서관에 접속해 보고 싶은 책을 바로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어 그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곧 핸드폰에서도 전자책 도서관의 이용이 가능해 진다고 하니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3. 전자책도서관에 바란다

전자책도서관을 이용한 지는 채 2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전자책도서관 역시 하루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처음에는 PC앞에서만 텍스트를 보던 수준에서 PDA를 통해 어디서든 전자책도서관에 접속하여 보고 싶은 책을 볼 수 있고, 지속적인 전자책 프로그램의 기능 개선으로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고 익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고 있다. 뿐만 아니라 MP3와 같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등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또한 조만간 휴대폰으로 이용이 가능해지고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가 추가된다고 하니 그 발전은 더욱 기대된다. 하지만 편리함과 유용함 때문에 전자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나로서는 전자책 도서관에 바라는 점 역시 적지 않다. 우선 전자책의 콘텐츠 수가 지금보다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도 인문사회과학을 비롯해 자연과학 등의 전공서적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자책도서관으로 모든 과제물과 정보욕구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특히 최근 출간된 도서와 외국 서적을 구해서 보기 어려운 점은 전자책 도서관이 개선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아쉬운 점은 전자책이란 이름에 걸맞는 멀티미디어 전자책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MP3를 통해 발음을 들으면서 학습할 수 있는 책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 수많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동영상 강좌와 책이 함께 이루어진 전자책이 있으면 학습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최근의 이슈가 되는 도서본문검색과 같은 전자책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들이 전자책 도서관에도 하루 빨리 도입되어 보다 수준 높은 정보를 빠르게 찾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전자책 콘텐츠 및 유용한 서비스의 도입과 함께 보다 다양한 단말기에서 이용이 가능하여 전자책도서관의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는 것도 필수이다.

기존의 전자책도서관의 강점과 함께 이러한 모습들이 잘 갖추어질 수 있다면, 전자책 도서관이 정보화 시대의 구색 맞추기가 아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첨단 시대에 학생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더욱 널리 전파하는 장이 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이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전자책도서관을 기대해 본다. 